

기독일보

“명성교회 분립하라…몇 교회 중 하나를 김하나 목사 맡기름”

통합목회자연대,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관한 ‘총회 결의 분석 세미나’ 개최

목회세습으로 9월 총회 이슈가 됐던 명성교회 문제가 최근 MBC PD수첩의 비자금 의혹 편 방영으로 다시금 이슈가 된 가운데, 15일 통합목회자연대 주최로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관한 총회 결의 분석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에서는 조건호 장로(변호사, 소망교회)와 임혁국 교수(장신대 역사신학)가 각각 “총회 결의의 법리적 조명과 전망” “103회 총회의 역사신학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 가운데, 특별히 노치준 목사(광주양림교회)가 앞으로 명성교회가 가야할 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노치준牧사는 “제103회 총회 주요 결의와 그 의미”를 두고 발표했는데, 마지막 4가지 명성교회가 갈 수 있는 길을 이야

기 했다. 먼저는 명성교회가 총회 의결을 뒤집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될 수도 없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명성교회가 103회 총회 의결을 존중해 김하나 목사의 취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교회 내부에서 일시적 어려움·갈등이 일어난 수 있겠지만,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부흥도 일어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다른 길은 명성교회가 세습방지법이 있는 예정통합 교단을 탈퇴하고 목회세습을 허용하는 타 교단 혹은 독립교회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목사는 “교단으로도 손실이 크고 명성교회로서

도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노 목사는 김동호 목사의 높은 뜻송의교회와 같은 방식으로 명성교회 분립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몇 개 교회로 분립해 그 가운데 하나를 김하나 목사가 맡는다는 것이다. 그는 “분립을 통한 새 교회 구성이 매개처치 문제와 세습 문제 모두 해결할 것”이라 봤다.

한편 같은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예정통합 103회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재심 여부를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 재판국 측은 이 건이 다루기 힘든 사안이어서 함부로 다룰 수 없었고, 때문에 기도하면서 다음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은식 기자



명성교회에 쏠린 눈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반대해 왔던 ‘통합목회자연대’가 15일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관한 총회 결의 분석 세미나’를 열고 총회 결의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했다. 좌로부터 노치준 목사(광주양림교회), 조건호 장로(변호사, 소망교회)와 임혁국 교수(장신대 역사신학). © 조은식 기자

밀려오는 동성애…건강한 성·생명 윤리는?

‘성과 생명 윤리 포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려

한국윤리재단·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살림을 꿈꾸는나비행동·한국사회발달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성과 생명 윤리 포럼’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12일 오전 10시 부터 개최됐다. 기조발표로 먼저 김준명 연세대의 명예교수(감염내과) 겸 전 대한에이즈학회 회장이 전했다. 그는 국내 에이즈 감염의 감염 경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김준명 교수는 자신과 함께 13명의 의대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논문을 제시하며 강연을 전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 HIV/AIDS 코호트’는 전국 21개 의과대학으로 구성된 다기관 연구연합체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며 “18세 이상 HIV 감염인 총 조사 대상은 1,474명으로, 남자 1,377명 여자 97명이었다”고 밝혔다.

그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HIV 감염 경로 조사 결과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 886명, 이성 간 성접촉 508명, 수혈 및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 5명, 무응답이 74명이었다. 이어 그는 “젊은 연령군으로 갈수록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비율은 더욱 증가됐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그는 “18-27세 젊은 연령 군에 있어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은 71.5%였고, 특히 18-19세의 경우는 92.9%로 급격히 증가됐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단어 선택에 따라 예민한 반응이 나올 수 있기에, 동성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동성 간 성 접촉이란 단어를 썼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정책에 있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객관적 의학 데이터를 가지고 에이즈에 있어 주된 감염 경로인 ‘동성 간 성 접촉’하는 집단에 대한 예방 정책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진교훈 서울대 사범대 국민윤리학과 명예 교수가 ‘성에 대한 인간학적 고찰’을 전했다. 그는 “인간의 성은 인간의 전체성, 즉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깊이 연관 돼 있는 고유의 존엄성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동물도 아니라는 것을 기초하며, 실제 성도덕의 문란은 인간의 성욕을 생물학적 문제로 격하시키는 데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인간의 성욕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동물은 발정기와 수태기가 정해져 있으며, 주위환경에 의존적이지만 인간의 성욕은 정신적으로 불안할 때나 재지변 전쟁 중 일 때나,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도 성욕이 항진한다”며 “그래서 인간의 성욕은 의도적으로 조절되도록, 항상 자기반성을 통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마니교나 플라톤처럼 성욕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으나, 성의 문란이 곧 인격파탄에 이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성의 신비는 영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서로 자신을 내려주는 헌신적 영욕의 표현”이라며 “그러므로 인간의 성행위는 자제(自制)와 헌신(獻身)과 같은 윤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그는 “성행위가 자기애에 머물 때 이기주의가 되며, 종래 남성이나 여성에게도 성의 능력에까지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며 “성충동은 근본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람에게는 고유한 성적 수치심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본능적 세력권으로 타락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자연적 방어력”이라며 “그러나 SNS를 통해 그릇된 선전, 성의 무지와 그릇된 성교육관은 성적수치심을 둔갑하게 만들고, 상업주의와 결합한 악질적 ‘성해방’은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성적 수치심을 파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혼인의 신성성과 가정질서의 방파제로서 기능하는 성적 수치심이 파괴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붕괴되고 사회 해체현상의 근본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현대 성심리학자들 중 성생활이 결혼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

는 자도 있다”며 “그러나 이런 그릇된 성 윤리는 이혼율 격증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예로 그는 “지금도 아름다운 ‘노인 연애’(로맨스 그레이)나 노인부부의 사랑은 성생활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퀴어이론과 자기결정권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주디스 버틀러가 1990년에 발표한 ‘퀴어 이론’의 핵심은 ‘나의 성은 내가 정한다’는 가설로 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여기서 주장하는 자기결정권은 천부 권리의 성격을 지니지만, 한편으로 어느 정도 제약이 필요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기결정권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라며 “왜냐면 자기결정권은 타인과 조화를 이뤄 사회적 공동선을 지켜야만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가령 그는 “중성화는 임은 외과환자의 수술조차 거부하는 사이며 종교집단의 행위를 자기결정권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는 용인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그는 “자기 결정권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가령 좋아하고 독선을 내세움으로, 공동체적 유대를 와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영아 살인과 자살 같은 인간의 생사문제, 순간과 근친상간이나 동성결혼과 같은 윤리문제는 사회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인간의 생명권에 속하는 이슈는 임의로 자기결정권에 의해 행사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신학자 불트만을 인용하며, “근세철학 이후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때에 비극은 시작됐다”며 “자기 결정권의 남용은 불길처럼 현대의 죽은 문화를 조래했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살할 권리나

동성애 동성혼도 각각 신체적·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것인데, 본래 인간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타인들과 더불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구성됐다”며 “생명가치와 관련된 문제를 독자적인 자기결정권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광혜원 튀빙겐 대학 조직신학 박사 겸 21세기 교회와 신학 포럼 대표가 ‘글로벌 성혁명 시대의 젠더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12차 대전을 지나 21세기는 부요하고 풍요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러나 21세기 문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마냥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대인 출신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를 꺼냈다. 그는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로서 세계적 지성함과 동시에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했다”며 “최상위 지식인 계층에 동성애가 만연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바로 세우는데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유발하라리의 저서 ‘호모데우스’를 인용하며, 광혜원 박사는 “21세기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지 예견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그는 책 내용을 인용하며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인류가 당면한 오랜 가난과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딛고 엄청난 번영을 구가하며 살고 있다”며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고 마치 신처럼 영생불멸하며 나아가 성적쾌락을 영원토록 누리는데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더 격약화한 일은 성별(sex)이라는 자연 질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남녀 성별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가족 질서 해체를 위해,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gender) 곧 성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포스트 모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첫째로 젠더 페미니즘의 형성사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18세기 말엽 여권신장과 남녀평등 운동으로 태동한 페미니즘은 프랑스 68혁명으로 급진적 성혁명으로 선회했다”며 “이후 1990년대 동성애 옹호세력을 추종하는 성정치 이론과 결합한 젠더리즘으로 변천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비밀를 라이히는 여성위에 군

림하는 가부장제 해체를 목표로 하는 성정치 이론을 주장했다”며 “이마저도 한계가 있어 젠더리즘과 결합해 아예 성별을 해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는 남녀 양성평등이 근간인 가정질서를 해체하는 데 있다”며 “레즈비언, 게이, 바이 섹슈얼 등 젠더리즘과 결합한 21세기 성 주류화 전략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성 주류화 전략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차지하는 국가전략임에도, 그 실체는 은폐됐고 이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기이한 현상”이라며 “성 주류화 정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 입안자 사이에만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성 주류화 운동의 정의는 여성이 사회의 주류 영역에 참여해 의사 결정권을 획득하는 운동인데 이는 절반의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본질적으로 그는 “21세기 성 주류화 운동은 성차별의 근거인 남녀 정체성(sex)을 해체하는 게 주요 목표이며, 나아가 가정 질서의 해체가 주된 목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68혁명 세대 중 최상교육을 받은 핵심 그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계 전반에 주도권을 쥐며지고 있다”며 “UN 같은 유력한 국제기구들은 전통적 가치체계를 전복하고 성소수자를 대변하고 있는 권력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동성애를 동성 간 애정 행위, 성 도덕에만 치중해서 봤는데, 이제 젠더리즘은 동성에 합법화를 사회주의 혁명 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전 세계 0.1프로만 동성 간 결혼을 하려 하는데, 왜 굳이 결혼과 가족 제도를 파괴하기 위한 젠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그는 페퍼 바우하우스 튀빙겐 대학 선교신학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내용은 이렇다. 페퍼 바우하우스는 “성 주류화 운동은 1789년 프랑스 혁명,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 이은 21세기의 문제적 혁명이 될 수 있다”며 “생물학적 질서를 전복시킬 반신론적·무신론적 이데올로기임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광혜원 박사는 “초·중·고

무교육에 필수 교과목인 성교육이 음란하고 노골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며 “성도덕이 와해되는 것은 결국 이혼의 급증, 이로 인한 가족공동체 분열, 정신적·심리적 상처, 성병의 만연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성차별 문제는 인류역사상 고질적 악행이었다”며 “참혹한 역사 속에서 여자는 수치와 굴욕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또 그는 “여기에서 치열하고 진정한 성 있는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며 “오늘날의 성차별 문제가 개선됐지만, 한편으로 성차별 악습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그는 “성차별 문제해결 방식이 인류의 고귀하고 보편적인 가족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해결 되서는 안 된다”며 “건전한 페미니즘은 인류의 안녕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사려 깊은 체계”라고 전했다. 이에 그는 독일의 사회학자 가르리엘 쿤버의 말을 인용했다. 내용은 이렇다.

첫째, 성 주류화 대신 가족 주류화를 추진할 것. 둘째, 결혼은 한 여성과 한 남성 간 이뤄질 것. 셋째, 자신의 생물학적 엄마와 아빠를 가질 권리를 아이들에게 보장할 것. 넷째, 학교에서 의무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애화를 막을 것. 다섯번째, 포르노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외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 여섯번째, 임태되는 순간부터 자연사하는 순간까지 생명권을 보호할 것.

끝으로 그는 “반드시 지켜야할 인류 보편적 가치인 가정 윤리 질서는 오직 기독교만이 사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죽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로서 존엄한 생명, 건강한 가족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가족적 유대관계는 삶과 죽음의 질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현안 중 하나는 자살 예방인데, 이를 위한 중요한 기제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둥거둥락 곧 아낌없이 나누는 가족 공동체는 최후의 정서적 안전망”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현 숭실대 초대기독교대학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어 기조발제에 민성길 연세대의 정신의학 명예교수, 이상원 총신대 기독교 윤리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한국윤리재단 운영위원장 겸 서울대 학원선교사 권요한 박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노형구 기자

구호단체들 잇달아 방북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베틀’과 유진벨 재단 등이 방북한다.

먼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베틀’은 B형

간염 치료 등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최근 약 한달 간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대북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베틀’(CFK)은 15일 지난 8월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이 단체 관계자 9명이 방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 전했다.

이 단체는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에서 의료품 및 식량이 제대로 전달, 분배됐는

지 확인했고, 결핵과 B형 간염 진료소의 북한 의료진을 훈련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시설의 개보수 및 우물 굴착 공사를 진행했고, 결핵과 B형 간염 치료를 위해 북한 보건성 관계자들과도 만났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베틀’의 관계자는 대북 제재와 미국 정부의 미국인 북한 여

행금지 조치, 유엔의 승인 등 복잡해진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대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진벨 재단도 16일 가을 정기 방문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유진벨 재단’은 대표단이 자신을 단체가 지원하는 다체 내성결핵센터들을 모두 방문해 북한 보건

성과의 협력 하에 의료진 및 기존 환자들을 만나고, 신환자를 등록시키며, 6개월분의 다체내성결핵약 및 기타지원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진벨 재단 방북단은 11월 6일 평양을 떠나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다.

홍은혜 기자

“개혁을 넘어 변혁으로: 외부적 변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월 월례회, 감신대 구약학 왕대일 교수 발표



감신대 구약학
왕대일 교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금이 높은 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나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행 7:46-50)

1. 왜 변혁인가?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성장시대이후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같은 위상을 지니게 된 데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며, 교회 건물을 신?개축하면서, 교회를 선교공동체로 성장?부흥시킨 목회자들의 피땀 어린 헌신이 있었다. 한국교회 목사들만이 지녔던 열정과 영성, 지성과 헌신, 비전과 예지(銳智), 지도력과 경영능력 등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한국사회를 대변하는 종교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였다. 그랬던 한국교회가 지금 모진 겨울을 맞이하였다. 교회성장의 동력이 꺼진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꼽는다면 교회성장대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교회 성장을 떠받치던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한국교회가 위축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고령화와 저(低)출산이 빚은 인구절벽 시대가 교인수의 절대 감소를 예측하게 한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반비례하여 찾아든 무(無)종교, 비(非)종교, 탈(脫)종교화 현상은 청장년층의 인구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나날이 전문화, 분업화, 기업화 되는 NGO 단체의 활동도 한국교회의 내일을 어둡게 한다. 각양 NGO 단체들이 교회의 역할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대신 처리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한국사회는 낚시, 등산, 요가, 필라테스 등 각종 스포츠 현장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한국사회의 전체 종교인구수보다 많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교회성장시대를 과거형으로 기억하게 된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내적인 문제에 찾아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여러 개체교회들이 교회성장시대에 앉았던 성장통(?)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 안에서 비롯된 문제를 봉합하기 급급하기에 한바도를 돌리란 한국사회의 정치사회경제적인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는 데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 탓에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대중과 점점 더 멀어지는 현상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우리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적극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의 기상도가 나아질 수 없다.

마이크 드루(Drew) 대학교의 교수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이 10여 년 전 한국교회를 찾아와서 했던 강연은 지금도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당시 레너드 스위트는 교회의 역사를 4 M으로 정리하였었다. Mission→ Ministry→ Maintenance→ Museum.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좌표는 어디쯤인가? 아니, 한국교회의 내일은 어디쯤 위치할 것 같은가?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이후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급변하는 교회생태계의 도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교회성장을 이루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성장시대이후를 준비하자는 것

이다. “against church growth”가 아니라 “beyond church growth”를 말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한다. 개혁(reformation)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혁은 리모델링(remodelling)이다. 개혁이 아닌 변혁(transformation)을 이루어야 한다. 변혁은 탈바꿈이다. 어떻게 변혁해야 하는가? 한국교회가 개혁을 넘어 변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2.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변혁을 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범고창신(法古創新)이라 하지 않았는가. 이 글이 주목하는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7:46-50이다. 교회의 첫걸음을 기존 성전종교에 대한 변혁으로 외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6-8장에 수록된 스테반 이야기는 스테반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로 말문을 연다. 스테반은 예루살렘성전을 할이라고 외쳤던 나사렛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했다(6:8-15). 그 전위여부를 대제사장이 추궁하자(7:1), 스테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스테반 당시 예루살렘 성전종교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를 변증한다(7:2-50). 그 맥락에서 의인 예수를 죽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담하게 고발한다(7:51-53). 나사렛 예수 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의인” 예수를 처형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박하였다(7:51-53). 그 말을 끝으로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는다(7:54-8:1a). 스테반이 순교당한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교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8:1b) 된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대목이 스테반의 육성으로 들리는 예루살렘 성전 비판이다. 사도행전 7:46-50이 바로 그것이다. 그 핵심은 48-49절이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스테반이 거론한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66:1-2이다. 스테반은 자신이 외친 유대성전에 대한 반감의 근거로 이사야 66:1-2을 제시하였다.

스테반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성전이 있었다. 스테반은 바로 이 성전의 정당성에, 정제성에 정면 도전하였다. 예수공동체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성전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형성된 예수의 제자들 도 그 초창기에는 성전의 기도시간에 맞춰 경건생활을 조율하였었다(행 3:1). 유대교성전과 예수공동체의 교회가 공존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소리다.

스테반의 순교는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놓는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 성전과 결별하는 수순에 들어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박해받는 단체가 되면서 예수공동체가 비로소 교회 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박해는 교회를 태동시킨 모반이었다.

스테반의 성전관은 그것이 사람 손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하나님은 “처소”(스케노마, 행 7:46)에 “다니시던”(미드할레크, 삼하 7:6) 분이시, “손으로 지은 지온”(케이로포이에토스, 행 7:48) “집”(오이코스, 행 7:47)에는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 결정적 단서가 모세가 세운 “광야교회”(에를레시아 엔 테 헤레모스, 행 7:38)였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사내 산에 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행 7:37-38)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 표준새번역은 이 광야교회를 “회중”으로 옮겼다. 그러나 “회중”보다는 “교

회”가 사도행전 7장의 의도를 잘 대변한다. 스테반의 설교는 바로 이 광야 교회의 정당성을 모세가 지은 성막?증거의 장막으로 연결시켰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시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행 7:44)

성전은 사람으로써 지었지만, 광야 교회, 곧 “증거의 증막”(스케네 투 마르튀리온, 행 7:44)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은 것이다.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은 것이지만, 성전은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이었다는 것이다. 교회가 본래 그 존재형식을 유대교성전이 아닌 모세의 성막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유대교 배경을 지닌 구약학자들은 성막과 성전을 서로 긴장하는 관계가 아닌, 성전종교가 성막신앙을 수렴하거나 성막신앙이 성전종교로 구현되었다고 보려고 한다. 예컨대 레벤슨(J. D. Levenson)이 그런 경우다. 그에게 성막과 성전은 유대교 신앙으로 들어서는 두 개의 출입문이다. 그러나 사도행전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성막과 성전은 그 위상에서, 그 본질에서, 그 역할에서, 서로 다르다. 증거의 장막은, 광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유대교로 입문하는 성전교회는 아무 상관없다. 교회의 터전은 반(反)성전이었다.

사도행전의 초점은 예루살렘 성전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바르게 깨우치게 하려는 데 있었다. 예루살렘교회가 처음부터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가 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소리다. 그렇지만 유대교가 시도했던 예수공동체에 대한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였던 교회를 유대성전종교의 울타리에서 떠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예수공동체로 하여금 성전종교의 변혁을 교회의 정제성을 세우는 기치로 삼게 했던 것이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부터 “교회”라는 용어가 눈에 띄게 빈번히 사용된 것은 예사롭지 않다(행 8:1b-3).

스테반의 순교는 예수공동체의 신앙이 유대교적 기독교에서 기독교적 이스라엘 신앙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었다. 예수신앙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종교로부터 벗어나 교회(에를레시아)라는 이름으로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근원적 계기가 되었다. 예루살렘성전종교의 그늘(?) 안에 있던 예수공동체가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된 것이다(행 8:1-3).

교회는 박해받는 자리에서 성전종교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났다. 성전유형을 답습하던 공동체에서 증인공동체로 변혁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경건한 사람들”(행 8:2)이 떨어져 나왔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흩어졌으며, 회중의 규모를 쉼하던 성전종교가 복음을 전하고 자 흩어지는 교회로 변혁되었다. 성전이 라는 건물을 추종하던 종교가 “도를 따르는 사람”(행 9:2)의 종교로 변혁되었다.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에서만, 있을 필요가 없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교회는 세워졌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행 8:1b)에서 ‘예수님은 “처소”(스케노마, 행 7:46)에 “다니시던”(미드할레크, 삼하 7:6) 분이시, “손으로 지은 지온”(케이로포이에토스, 행 7:48) “집”(오이코스, 행 7:47)에는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 결정적 단서가 모세가 세운 “광야교회”(에를레시아 엔 테 헤레모스, 행 7:38)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전지향적인 종교유형을 답습해서는 그 미래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니 유대교식 성전종교로 부터 갈라서야 했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야 했다. 유대교에서 성전은 하나님이요 다. 모이는 곳이었다. 성전의 규모나 역할 등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 밖의 것은 어디에 있던 그 한 회당으로 불렸다. 성전종교에는 계층(hierarchy)이 있었다. 성전 제사장과 회당 랍비의 위상이 달랐다. 성전 안에서도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상이 달랐다.

교회는 유대성전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혁시킨 신앙공동체였다.

유대교에서는 회당 위에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신앙공동체에서는 교회 위의 교회란 있을 수 없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모 교회 역할을 하였지만, 그마저도 15장 이후부터는 그 위상이 미미해진다. 교회의 지도자도 더 이상 서기관이나 랍비, 제사장이 아니었다. 교회의 지도자는 처음에는 사도, 나중에는 목자, 목사, 교사이었다. 그런 바탕에서 교회는 모이는 종교에서 흩어지고, 나눠지고, 쪼개지는 공동체로 탈바꿈하였다. 교회의 첫걸음은 성전종교의 대변혁이었던 것이다.

3. “오늘”의 성전에서 “그 날”에 세워질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종교에 관련한 스테반의 증언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행 7:48)는 선언으로 요약된다. 이 선언은 “하늘의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라는 이사야 66:1을 사도행전기자가 재해석한 결과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공간에, 하나님이 임재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다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이다. 이사야 66:1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사야 66:1을 새기기 위해서는 그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이사야서 66장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유대백성들이 제2성전건축(주전 538-515년)을 세울 때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그 배경으로 한다. 예루살렘에 두 번째 성전을 세우는 일은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그러나 이런 지면 정치사회적 혼란 탓에 오랫동안 지체된다. 그 결과 포로후기 예루살렘 주민사회는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 한 편에는 하나님이 “돌보는”(사 66:2) 자들로 불리는 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 편에는 이사야 66:3-4인 꾸짖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사 66:4)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제물을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사 66:3,새번역)

우리말 성경은,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이사야 66:3을 성전제회의 유효성이라 의미를 제거하는 투로 옮겨놓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유대인의 성경(JPS)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다.

소를 잡아 드리고 살인도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개의 목도 꺾고, 소제를 드리고 돼지 피도 드리고, 분향하면서도 우상에게 찬송하고(사 66:3, JPS).

소와 양과 소제와 분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살인(사람을 제물로 바치기)이나 개나 돼지를 제물로 잡는 행위 는 이교도 종교제도의, 즉 이사야 66:3이 문제 삼는 것은 혼합주의다. 이스라엘 신앙을 지키면서도 당대의 종교문화속을 거닐길 없이 추종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사야 66:10 토해내는 제2성전건축에 대한 반감은 이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자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사 66:2b, 새번역)을 돌보신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사 66:10)이다. 예루살렘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낱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나 나랴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

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사 66:7-8)

시온을 아이 낳는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다. 시온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암시하고 있다. 시온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 품에 안긴 아가에게 젖을 먹이고 키우는 어머니로 적극 풀이하고 있다(사 66:11-13). 시온에 대한 진술이, 성전건축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어조에서 긍정적인 글말로 바뀌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이사야서는 성전신앙의 보고다(사 61:5-; 36-37장). 그렇지만 구약 이사야가 거론하는 성전에 대한 진술은 다층적(多層的)이다. 이사야 1장에서 시온은 “딸 시온”(Daughter Zion)으로 소개된다(사 1:8). 시온은 바르지 못해서, 외롭지 못해서, 공평하지 못해서,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쓴 소리를 들어야 되었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다. 그랬던 시온이 이사야 40-55장에 들어서면 ‘여자 시온’(Lady Zion)으로 바뀐다. 그런데 그 처지가 가련하다. 시온은 버림받은 아내였으며(사 49:14), 자식 잃은 과부와 같았고(사 49: 21), 아기를 낳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여자였다(사 54:1). 그랬던 시온이 이사야 66장에 와서는 ‘어머니 시온’(Mother Zion)으로 달라진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안타까움의 대상이던 여자가 한 순간에 잉태와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사 66:7-9). 풍성한 젖으로 그 자식을 먹이고 키우는 넉넉한 어머니가 된다(사 66:11-13).

이처럼 이사야서에는 성전 이미지가 “처녀 시온”→ ‘여자 시온’→ ‘어머니 시온’으로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사야인의 분위기를 현실지향에서 종말론으로 뻗어나가게 한다. 이사야 66:1에 각인된 성전 짓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이사야 66:7-14에 묘사된 어머니 시온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모두 오늘날의 시온이 아닌 그 날에 가서 만나게 될 내일의 시온에 대한 가르침에 해당된다. 그 내일은 아해 하나님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날이다(사 65:17; 66:22). 그 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사 65:18). 그 날이 되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사 66:23). 왜 이 같은 종말론이 대두되었을까?

포로후기 시대의 제2성전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후원 아래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계나 스가라는 그 제2성전 공사를 적극 독려했었다. 성전이 지어져야 왕이신 야훼가 시온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 영향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유대백성들 사이에 메시아신앙(Messianism)이 뜨겁게 타올랐다. 제2성전의 완공에 크게 기여한 제사장 예호수야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켜 “두 갑갑 나무”로 호칭하였다(속 4:3, 13-14; 참조, 학 2:23).

하지만 제2성전이 완공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아대망의 열기는 가라앉고 만다. 페르시아가 주도하는 현실종교의 실상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종말론 신앙이 대두되었다. 이사야 56-66장은, 특히 66장은 이스라엘 신앙의 지평선을 ‘현실에 만족하기’(status quo)에서 종말론으로 뻗어나가게 한다. 여기에서 이사야서 66장의 성전관이 제시된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면 사도 오늘날의 성전을 그 대안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성전을 반대하지 않았던 것은 유대교가 물려받은 이스라엘신앙의 유산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성전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은 이사야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제2성전의 위상이 그 신앙적 전통성에서 한참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입에서 섰포되는 성전관은 탈(脫)성전적인 위상을 띠게 된다. 탈(脫)성전적인 경건을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처방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현실의 성전이 아닌 그 날에 가서 세워질 성전을 조망했다는 것이다.

4. 탈(脫)성전과 반(反)성전에 담긴 간절함, 개혁에서 변혁으로

이사야서 66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현실에 기반을 둔 성전이 아닌, “그 날에”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에 대한 조망도에 기초한다. 현실에 매여 있는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은총을 누릴 성전을 조망한다. 하나님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을 적당

히(!) 얼버무린 혼합주의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낳으실 순결한 새 시온을 바라본다. 그 내일의 시온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오늘의 시온을 과감히 내려놓는다. 그 종말의 성전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오늘날의 성전에서 과감하게 벗어난다.

이사야 66장이 그러는 조감도는 기존 성전종교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을 밀그램으로 삼는다. 폐쇄적이던 회중이 드리는 제사중심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사 56:7)으로 변혁시키기로 하였다. 혈통을 따지던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사 56:3-7). 종교법칙을 따지던 공동체 유형을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교 중심으로 변혁시켰다(사 61:1-2). 그러면서 부성적인 성전종교를 모성적인 성전신앙으로, 어머니 시온으로, 바꾸어놓았다.

스테반의 설교는 이사야가 품었던 그 종말론적 성전의 위상을 나사렛 예수가 구현하신다고 증언한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막이 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이니(다요 1:14). 교회는 성막성전으로, 성육신 신앙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 찬가처럼 교회는 낮아져야 하고, 비워야 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하고, 복종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빌 2:5-8).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빌 2:9) 이름을 얻게 하신다. 여기에서 사도행전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야서 66:1의 탈(脫)성전적인 신앙을 아예 반(反)성전적인 가르침으로 적극 제시하였다.

신약에 인용된 구약구절은 여러 가지에서 해석할 수 있다. 사도행전 7장도 사도행전 본문이 자기 신학을 입증하려는 증빙문서(proof text)로 이사야 66:1-2를 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 그럴까?

사도행전 7:49-50에 인용된 이사야 66:1은 그 말의 자리가 기독교신앙공동체가 유대 예루살렘 종교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다. 그 변혁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7장은 다윗이 짓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처소”였으나 그것을 “집”으로 바뀌놓은 자는 솔로몬이었다(행 7:46-47). 사무엘에서 7:5-6에 따르면, 다윗이 짓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이 살 “집”(바이트, 삼하 7:5)이었다. 그랬던 것을 사도행전 본문은 교회의 근거를 광야교회(모세)와 하나님을 위한 처소(다윗)로 이어지는 전통으로 제시하고자 구약의 야기를 과감하게 개정시켰다. 한편에서는 탈(脫)성전에서 반(反)성전으로 나아가는 신앙공동체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모세(광야 교회)에서 다윗(하나님의 처소)으로 이어진 순종의 길로 재해석하였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7장 본문은 출애굽기 25-31장의 성막신앙과 이사야 66장의 종말론적 성전이라는 사실이 있다. 이사야 66장이나 사도행전 7장은 모두 기존종교에 대한 변혁을 주장한다. 기존종교를 변혁시켜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 길이 열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는 모두 기존 유대성전종교를 넘어서는(beyond Jewish temple piety) 신앙유형을 적극 모색한 결과가 담겨 있다. 이사야의 경우는 그 유형이 예루살렘 성전을 종말론적으로 조망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스테반의 경우는 그 유형이 성전을 대체하는 광야교회의 회복으로 나타난다.

사도행전 7장에서 들었던 스테반의 설교도 이사야 66장의 예언은 각각 자기 시대의 신앙공동체에게 쏟아낸, 그 신앙공동체의 존재양식이 변형되어야 한다는 일괄(一鰲)이었다. 일괄, 한 일(一), 꾸짖을 갈(鰲)! 큰 소리로 꾸짖었다. 목이 매도록 소리 높여 외쳤다. 무엇을 외쳤는가? 현실주의에 불붙린 성전보다는 “그 날에”

완성될 성전을 외쳤다. 그 내일의 성전이 있기에 오늘의 성전에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것은 혼합주의의 온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무엇을 외쳤는가? 사람이 만든 집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실 “처소”를 외쳤다. 이스라엘 신앙공동체가 광야 교회의 유산을, 하나님을 위한 처소라는 유산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꾸짖었다.

그랬기에 이사야는 성전의 진정한 실체를 종말론적으로 조망하는 방식으로 당시의 성전종교가 거듭나기를 소망했고, 그랬기에 스테반은 그 종말론적 비전에 기대어 아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설파(說破)하였다.

이사야나 스테반의 말은 단순한 설명(說)이 아니다. 그것은 기존 성전종교를 깨뜨리는(破) 외침이었다. 신앙공동체는 처음부터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였던 것이다. 그러니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유대성전종교를 깨뜨리는 변혁공동체이었다. 그 변혁공동체의 완성을 현실이 아닌 종말론의 지평에서 소망하였다. 그 날에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지평에서 오늘의 교회를 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늘 ‘도상의 교회’(Church on the Way)가 되어야 한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 “길” 따라 “흠어진 사람들”(행 8:4)이 무더기로 쏟아지지 않

았던가!

5. 그렇다면 한국교회, 어떻게 변혁되어야 할까

오늘의 한국교회가 스테반이 외친 광야 교회에서, 이사야가 외쳤던 종말론적 성전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교회의 변혁을 향한 “타는 목마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절실하다. 그 절실함을 한두 마디로 다 거론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사도행전 7장과 이사야 66장에 근거해서 한국교회의 변혁을 향한 이정표를 제시해볼 뿐이다.

스테반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유대성전종교로부터 떨어뜨리려 했듯이 오늘의 한국교회는, 그 규모가 대형교회든 개척교회든, 탈(脫)성전화, 탈(脫)성전종교화해야 한다. 교회의 존재양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소리다. 교회가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은 성전종교의 성전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흠어져야 하고, 각 지역사회나 분산된 각 계층에 세워지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요즘을 우리 교회에서 성전은 교회의 하부구조(집회장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한다. 교회 안에 성전(예배당)이 있어야지 성전(성전종교) 속에 교회가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시작은 유대성전종교로부터 뒤흔쳐나온 프로테스탄트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다시 유대교식 성

전종교로 되돌아가버려서는 안 된다.

교회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규모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마 25:14-30). 크게 자라는 나무도 있고 작게 자라는 나무도 있다. 다 주님이 키우시는 나무다. 단, 교회마다 자라서 교회끼리 더불어 숲을 이루어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계시묵으로 이어지는 신약의 말씀에서 교회는 서로 더불어 숲을 이루는 방식으로 퍼져나갔다. 예루살렘, 안디옥, 예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발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교회 식으로 당시 지구촌에 교회라는 숲을 이루어 나갔다.

이 점이 중요하다. 한국교회가 숲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개척 교회들이 각각 약진하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생존(!)했지만, 이제부터는 나무와 나무가 함께 하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공생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림(造林) 방식으로 교회변혁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큰 교회는 있어야 한다. 아니, 있게 된다. 지역사회나 계층공동체의 구조?규모?형태 등에 따라서 교회는 얼마든지 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형태로는 아니다. 큰 교회 안에 여러 공동체들이 연합하는 형태로 그 체제를 달리해야 하고, 교회의 자원을 주변의 다른 교회들과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디아코니아를 함께 펼쳐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작은 교회도

강연

마찬가지다.

단, 지금 모습으로는 아니다. 담임목사의 생계형 교회로서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없다. 큰 교회가 교회 안에 여러 공동체들을 연합해 형태로 두듯이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들끼리 연대하여 디아코니아를 공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스테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맞섰던 자들은 유대교의 바리새파 학자와 사두개파의 종교인들이었다. 레너드 스윗의 표현을 빌리면, 현상유지(maintenance) 타입의 종교인들이었다. 스테반은, 그리고 스테반 이후에 등장하게 된 교회의 지도자들은, 역시 레너드 스윗의 표현으로 설명하면, 전도(mission) 형의 종교인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신앙공동체의 지도자가 달라져야 한다. 주목할 것은 다 같이 전도와 복음전파에 힘썼지만,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베드로 등이 서로 다 달랐다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가?

한국의 개신교회는 담임목사(당회장) 중심의 교회다. 이 체제를 존중하면서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면, 교회 안에 여러 명의 목사들이 공동으로 목회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 선교사만이 아닌 수도사 등도 같은 교회를 더불어 섬기는 목회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고시(강도사고시)를 패스 했다고 해서 꼭 담임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해서도 안 된다. 평생을 한 공동체에서 목사로 사역하다가 은

퇴하는 트랙도 마련되어야 한다.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다 나중엔 그 회사의 CEO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회끼리도 통합해야 한다. 시장의 용어로 말한다면, 구조조정이나 MOU를 해야 한다. 교회 수가 너무 많다. 목사후보생을 배출하는 신학교가 너무 난립되어 있다. 한 교회가 한 교회건물을 세우고 짓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연대하여 함께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건물을 짓고 공유하며 유지하는 형태로 존재방식을 변혁시켜야 한다. 그런 변혁을 위해 목회구조마저도 공동목회 형태로 변형되어야 한다.

스테반의 설교에 인용되었던 포로후기 시대의 이사야는 종말론 신앙을 당시의 종교가 겪던 난관을 헤쳐 나가는 돌파구로 삼았다. 종말론 신앙이 무엇인가? 제도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신앙이다. 그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오늘의 나”를 내려놓을 줄 알고, 비울 줄 아는 신앙이다. 한국교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신학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신학생의 숫자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교단신학교들의 구조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신학교육의 체제와 내용을 과감하게 변혁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의 신학교육은 지적 오리엔테이션(intellectual orientation) 중심이었다.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과목을 이수하게 해서 목사가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가르침 중심의 현행 신학교육은 넓게 보면 대학교육, 좁게 보면 직업교육이다. 직업교육이라면 졸업생들에게 하자가 발견될 경우 Recall이나 AS라도 해야 되는 데, 현행 시스템으로는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다. 이제 지식은 가르치는 신학교육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양육되는 신학교육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이사야가 종말론 신앙에서 현실의 갈등과 위기를 돌파했듯이 오늘의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종말론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목회하는 목회자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성직자(목사)로 다시 조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한국교회가, 레너드 스윗의 용어대로, 박물관(museum)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 박물관은 기념관이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기념관으로 그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

다시 박물관시대→ 현상유지시대→ 목회시대→ 전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야성(野性)을 영성의 본질로 채워야 한다. 그 여정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에서 모성적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시대이후에도 교회답게 자랄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돌보시며 자라게 하신다.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

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제공

개혁을 넘어 변혁으로: 내부적 변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월 월례회,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 발표

2017년도는 교회사에 역사적이었던 해였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함께 다시한 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며 도모했다. 그러나 개혁을 넘어 변혁을 추구한다

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왜냐면 변혁이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성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로 12:1-2). Dallas Willard: “Spiritual formation... is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the heart.”

오늘 발제를 통해서는 특히 교회 안에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

서 필요한 변혁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회의 변혁이란 곧 성도 각 개인의 변혁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변해야 성도가 변한다. 그리고 성도가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

오늘 발표 내용은 마가복음 2장에서 얻은 교훈들을 배경 삼아서 정리해 본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자. 우리 각자가 섬기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경우, 무엇이 헌 부대이고 무엇이 주님이 바라시는 새 부대의 모습일까? 이 교훈들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모습들을 필자의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마지막 부분에 잠시 살펴보고자 하겠다.

◆헌 부대의 모습 1: 전통과 형식에 묶여 있는 종교

말씀의 배경: 주님께서는 한 중풍병자

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셨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것은 곧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말한다(1-12절). 그 후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그의 집에 거하시게 되는데, 종교인들은 주님께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냐고 자신들의 못마땅함을 표현한다(13-17절). 또한 금식의 문제(18-22절)와 안식일 문제(23-28절)를 가지고 주님이 율법의 전통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형식(프레임과 규정)으로 인해 주님 자신을 비판하며 소송하고 마는 자들이 되어버린다.

◆헌 부대의 모습 2: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종교

말씀의 배경: 금식에 대한 이슈를 꺼내면서 종교인들은 자신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하고 있느냐고 지적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보이고 있는 금식 생활을 모델로 삼으면서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정한 금식이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구약성경에서

도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하나님은 수차례 말씀하셨다.

◆헌 부대의 모습 3: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종교

말씀의 배경: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판단하고 나오는 자들은 누구였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 그 당시 종교와 사회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러하여 그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일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꼭 필요했던 이유도 그 당시 종교 리더들이 쥐고 있던 종교적/사회적/정치적 기득권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 때문이 아니었나? 그 당시 교회는 겉으로는 왕성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기 때문이다.

◆새 부대의 모습 1: 예수님을 주목하며 기뻐하는 믿음

말씀의 교훈: 금식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

다. 그들은 신앙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당연히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다. 여기 비교되고 있는 두 그룹을 보아야 한다. 하나는 신앙의 형식을 지키고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초점을 돌리고 종교인들이고, 또 하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돌리면서 그를 만끽하고 있는 제자들이다.

◆새 부대의 모습 2: 사람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믿음

말씀의 교훈: 마가복음 2장 전체의 흐름에서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교훈이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자들을 세우시고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에 이삭을 주워 먹게 하셨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곧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과 사역으로 보여주셨다. “내가 금식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마 9:13).

◆새 부대의 모습 3: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믿음

말씀의 교훈: 새 부대란 문자 그대로 새로운 부대를 뜻한다. 낡은 옷에 생베 조각을 붙이지 않는 것처럼, 헌 부대를 부분적으로 잘라서 그곳에 새 부대를 부분적으로 붙일 수 없는 것이다. 아예 새로워져야 한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어떻게 성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질문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3:5-6). 하나님의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부대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섬기고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

- 장로 임기제
- 상담 센터 설립
- 뉴웨이브 예배 설립(담임목사와 교회가 청년 세대와 함께하며 함께 가기 위한 예배)
- 다른 교단과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 배우려는 노력

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제공

www.kogas.or.kr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굴착공사 신고번호
1644-0001

가스안전

바르게 딛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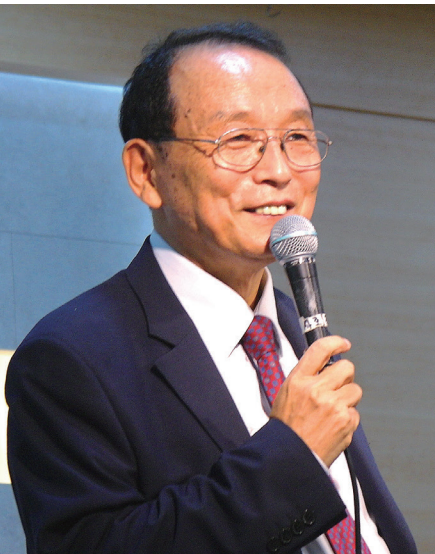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 열어갈 계시록 해석이 타당해”

김명용 전 장신대 총장, 5회차 마지막 온신학 아카데미 강연



온신학 아카데미 김명용 전 장신대 총장

15일 오후 7시 천호동 광성교회에서 김명용 전 장신대 총장은 온신학회 5회차 마지막 강의를 전했다. 마지막 강의 주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과 바른 기독교 역사관’이다.

그는 “요한계시록은 로마황제 도미시안의 박해기에 기록된 책으로서,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그릇된 요한 계시록 해석을 경계했다. 예로 그는 서달석의 저서 ‘현실로 나타나는 666’을 제시했다.

이 책을 지적하면서, 그는 “서달석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언급된 짐승의 수 666은 컴퓨터라고 주장했다”며 “컴퓨터의 영자 스펠링을 아라비아 숫자로 환원해서 합치면 666이 된다는 것”이라 전했다. 김명용 목사가 전한 서달석 논리에 의하면, C=18, O=90, M=78, P=96, U=126, T=120, E=30, R=108이고 모두를 합하면 666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666인 셈이다.

김명용 목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관한 말세론적 주장은 어느 정도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요한계시록의 말세론적 주장은 666이 바코드, 신용카드 속에서 숨어있고 이 바코

드 없이는 상품거래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데, 이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나니’라고 언급된 예언”이라 전했다.

그렇다면 요한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는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의 묵시서에 속하는 책이며, 대부분의 묵시서들은 박해기에 기록된 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용, 짐승, 나팔 뿜, 등 알기 힘든 언어들은 바로 이 박해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이런 언어들은 모두 박해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위장 언어”라고 전했다.

결국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며 “요한에 의하면 로마 황제 도미시안은 명백히 사탄이었지만, 박해의 상황은 이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요한계시록 13:1-2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내용은 바로 로마가 갖고 있는 권세는 마귀로부터 왔음을 말해준다”며 “유대 묵시서에서 용은 마귀, 짐승은 국가를 상징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당시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칙령을 반포했는데, 그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나왔다”며 “요한은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는 마귀에게 속한 권세이므로 끝까지 저항해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요한의 권면으로 요한 계시록 2:10, 21:6-8을 예로 들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승리하는자는 영원한 생명의 생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그의 하나님이고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그러나 두려워 하는자, 믿음이 없는자, 우상숭배자, 살인자는 불타오르는 유황의 바다에 빠질 것이다”(계21:6-8)

김명용 목사는 “계시록 13장 1-2절에 언급된 로마의 권세는 바울이 쓴 로마서 13장의 언급과 내용상 반대 되지만 상호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정상적인 국가’, 즉 국가가

선을 장려하고 악한 자를 벌하여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정상적 법치국가를 전제로 둔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계시록 13장의 국가는 이미 악의 도구가 된 로마를 말하며, 로마는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에 저항해야 함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의 말을 기초로 독재 권력에 순종과 충성을 강요하는 부분은 전혀 성서적 정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666의 의미는 무엇일까? 김명용 목사는 “계시록 13장 18절에서 666은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을 바로 네로(NERON)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의하면, 앞서 컴퓨터 스펠링을 아라비아 숫자로 환원한 것처럼, 황제 네로를 히브리어 숫자로 전환해 합하면 666이 된다고 한다. 하여 그는 “666은 오늘의 컴퓨터나 바코드와는 전혀 관계없는 오직 황제 네로를 상징하기 위해 일화적으로 쓰인 암호 숫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는 표현은 666이 네로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 준다”고 설명했다. 왜냐면 “이는 당시 팽배한 네로 환생설 때문에 나온 말이며, 네로는 악한자여서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인들을 도륙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요한은 현재의 도미시안 황제가 환생한 네로와 같고, 무자비한 탄압과 황제숭배를 강요하는 적그리스도 666임을 드러냈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김명용 목사는 바클레이(W.Barclay)연구를 인용하며, “항을 피우고 황제에게 경배하고 난 후에는 그것을 이행했다는 증서를 사람들이 받았다”며 “이 증서가 바로 짐승의 표이며, 이는 박해와 죽음으로부터 면피 받으며 로마 제국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요한은 이 표를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왜냐면 신앙을 버리고 황제숭배를 하면 장래에 건설될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

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요한계시록은 말세론적 해석으로 컴퓨터, 바코드, 만국 통화화폐를 말하는 게 아닌, 로마 황제 도미시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성도들에게 그 박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인 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책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해석하면 치명적 오류에 빠진다”며 “물론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지만, 말세에 대한 연대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용 목사는 휴거론, 7년 대환란 이론도 반박했다. 먼저 휴거론을 언급하며, 그는 “휴거론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중심에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예수의 지상 재림이 있기 7년 전 공중의 비밀 재림이 일어난다”며 “그러나 이 휴거론이 주장하는 예수의 두 번 재림은 성서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휴거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전서 4:16-17을 제시하는데, 이 본문은 예수께서 마지막 재림의 날을 서술한 본문”이라며 “또 본문에 나온 죽은 자의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지, 결코 예수 재림 이전 7년 전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데살로니가 전서 4:16-17절은 이렇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6-17)

김명용 목사는 7년 대환란 이론에 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7년 대환란 시대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역사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은 마귀가 창궐해 온갖 핍박이 일어나는 한흑의 시대이며, 이는 역사가 어둡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비관주의적 세계관을 형성시킨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그는 “7년의 시기는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처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결국 공중 휴거에 사람들이 집중했던 까닭은 7년 대환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깊이 깔려 있다”며 “휴거해서 하늘의 어린양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사람은 매우 복되지만, 휴거를 못하고 남아 7년 환란의 시기를 맞는 사람은 참담한 세월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교회와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게 되면, 역사를 변화시키려는 교회 활동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왜냐면 그는 “7년 대환란은 결국 역사는 과국을 향해가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7년 대환란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역사에 대한 비판주의는 교회의 역사적 책임을 도외시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 속에 정의의 세우기 위해 일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의 과제와 7년 대환란은 공존하기 어렵게 된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대주의 종말론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세상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은 길라래기 어렵다”며 “학교도 직장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7년 대환란 이론은 성경에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김명용 목사는 7년 대환란 주의자들이 근거로 제시한 계 11:13, 계 12:14 절을 풀어 반박했다. 그는 “계11:13의 ‘1260일’, 계12:14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각각 3년 반으로 환산 된다”며 “이는 각각 다른 개념이지, 둘을 합해 7년 대환란 이론을 만든 것은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계 12:14의 한 때, 두 때, 반 때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관련돼 있다”며 “다니엘서는 셀레우코스 제국 치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4세) 시대에 쓰여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당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에게 히틀러와 비견될 박해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그는 모세 율법을 읽는 것과 할례를 철저히 금했고 이를 어기면 모두 죽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당시 에피파네스의

지 않았던가?”고 반문했다.

하여, 그는 “우리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란한 소리보다 교회를 뒤로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수많은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한국에서 교회의 잃었던 신뢰도 다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마무리 했다.

이어 서울신학대 유재덕 교수는 ‘변화하는 세계와 신학교육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그는 “정보화 사회에서 신학교육은 효율성과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이는 신학교육의 지나친 전문화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목회지원자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다보니, 결국 신학교육의 검증 부재와 지역 교회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론 중심 신학교육 역시 전통적 신학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거론됐다”며 “이로 인해 교회 현장과 간극이 한층 더 벌어지고, 본연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론에서 실제로 일방적 진행을 당연시 여기는 신학교육도 문제”라며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이론(기독교 전통과 성서)과 실제(경험) 사이를 병행해 연계하거나, ‘실천-이론-실천’이라는 순환적 과정을 밟아

박해로 허가 잘려 죽은 자, 산 채로 기름 가마에 끌려 들어가 죽은 자, 온 가족이 기름 가마에서 죽은 자들이 많았고, 나아가 유대성전을 훼손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돼지 피를 뿌리는 박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는 “이 처참한 박해가 3년 반 지속되다가 결국 마카비 형제의 저항으로 인해 유대는 승리하고 성전은 다시 정화됐다”며 결국 3년 반은 유대인의 가슴 속에 새겨진 상징적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즉 그는 “다니엘, 요한계시록 같은 유대 묵시문학에서 3년 반은 마귀가 통치하는 상징적 기간”이라며 “다니엘의 3년 반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요한계시록의 3년 반은 도미시안의 박해를 상징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그는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이 지나면 마귀의 통치는 끝났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1000년이나 지속될 것”이라며 “요한은 로마 권력이 온갖 박해를 할 지라도, 세상의 참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눈물을 닦아 주시고 승리를 얻게다 줄 것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의 주제”라며 “계시록은 비판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닌 희망의 역사를 위한 책”임을 그는 역설했다. 다시 말해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둠 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뤄질 것을 희망차게 선포하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재차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는 미국에서 펼쳐진 요한계시묵의 적용”이라며 “인종차별 속에서 미국의 국가 권력까지 말해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둠 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뤄질 것을 희망차게 선포하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재차 말했다.

즉 그는 “킹 목사는 주님과 함께 오는 꿈과 희망 이었다”며 “마침내 미국에서 오바마라는 최초 흑인대통령이 등장하는 꿈이 일어 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요한계시묵은 소아시아의 박해받던 성도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였지만, 이는 20세기, 21세기에도 울려 퍼지는 주님의 희망찬 메시지”라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노형구 기자

“작은 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 돌려야 할 때”



서울신학대 미래신학교육포럼을 마치고, © 미래신학교육포럼 측 제공

새로운 신학교육의 방향 논하는 학술대회 서울신학대에서 개최

미래신학교육포럼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가 1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신학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제목은 ‘변화하는 세계와 신학교육의 미래’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임창호 박사(고신대 부총장)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학교육 바뀌어야 한다’로 강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감정이 배제된 기술 간의 결합을 경계해야 하며, 공감이나 연대 같은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지점에서 신학교육이 학문적 이론이나 형식, 교리, 교단정신에 치우쳐 그들만의 리그에만 머물러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hinzu어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핵심”이라며 “이를 실천하고 공감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연합·연대 운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성령 내주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쳐다볼 게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봐 적극 소통함”을 제차 말했다.

또 그는 “4차 산업 사회는 유대관계의 절단성이 특징이며, 하여 인간성의 근간이 되는 네 가지 지능을 잘 키우고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상황맥락(contextural)지능, 정서(emotional)지능, 영감(inspired)지능, 신체(physical)지능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상황맥락지능은 인간의 정신을, 정서지능은 인간의 마음을, 영감지능은 인간의 영혼을, 신체지능은 건강한 몸을 각각 의미 한다”며 “신학교육은 건강한 기독교세계관과 신앙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할 것이며, 따뜻한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경험하고 채울 수 있는 공동체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경건하고 민감한 영성훈련이 신학교육의 현장에서 필요하며,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뛰며 어울리는 가운데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건강교육을 구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학생들 간의 형제에 제고와, 교수와 학생들 간 친밀한 교류 등, 기독교 공동체적 환경을 형성해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어떠한 이익과 생산, 수월성같은 혜택보다 비인간화(Dehumanizing)를 경계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산업혁명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왜냐면 그는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따라서 인간중심의 산업혁명이란 인간이 세계에서 떠나고 있다”며 “주님께서는 작고 힘을 부여받는 것을 뜻 한다”고 강조

했다.

아울러 그는 “삶의 모든 주변 환경과 편리기기를 다룰 때,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하여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기독교 인간학적 탐구와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결국 신학교육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과 궤를 같이 한다”며 “대화공동체, 교회공동체, 이웃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는 것 역시도 신학교육에서 강조 돼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결국 그는 “지나치게 개인 중심적이고 기계중심적(핸드폰, 컴퓨터, 게임기 등)이 만연한 때, 요즘 젊은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교육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친밀해지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선두주자인 슈밤은 기계, 컴퓨터, 문명의 도구보다 인간적 유대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신학교육에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인간중심의 자세와,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독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슈밤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적응하고 따라가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 어떻게든 교회, 노회, 총회, 한국교회, 교수들, 목사를 모두 치열하게 변화야 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반면 그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성장지상주의에 익숙해져서 외적으로 크고 많은 것을 지향했다”며 “작은 것들에 대해 소홀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조차 소외돼 버린 작은 자들 곧 소자들이 교회 문밖으로 떠나고 있다”며 “주님께서는 작은 소자하나를 실존하게 하지 말라고 하

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다양한 학문들을 단순히 모았다고 비판받는 현재의 파편화된 신학교육이 일관되고 통합적인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는 신학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문간 협력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신학자들의 출현을 돕는 교육과정의 개편과 교육환경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과도한 전문화 목회자 중심의 신학교육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학 교육은 다양한 학문과 적극적인 대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문병구 박사(서울신대 교수·신약학)가 ‘신학대학원의 성서교육의 현실과 그 발전적 대안 모색’을 전했다. 지정 토론자에는 박성경 박사(서울신대 교수·기독교윤리학)가 맡았다. 이어 박성진 박사(장신대 대학원장·기독교교육학)는 ‘한국 신학교육의 개혁 방향 및 과제:신학대학원(M.Div)을 중심으로’를 발표 했다. 뒤따라 이길용 박사(서울신대 교수·기독교윤리학)는 ‘미래의 신학교육은 여전히 교회교육이어야 하는가’를 발표했다. 지정 토론자로 김성원 박사(서울신대 교수·조직신학)가 나섰다.

노형구 기자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편집장 장세규 교계편집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daily.co.kr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기사제보 press@cddaily.co.kr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구독신청 우리은행 1005-301-884992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